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3호 [루게 제25011호] 주제104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성된 위협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긴급소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 지도

최근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로 하여 나라의 정세는 전쟁경계로 치달고있다.

지난 8월 4일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등대고 전 전선에서 재개된 남조선피괴군부장패들의 대북심리전방송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있으며 악질반동단체들을 동원하여 벌리고있는 대북베라살포작전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대북심리전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겨냥한 로골적인 침략전쟁행위이다.

이는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군대가 목숨으로 지켜가는 우리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우리 정권과 삶의 모든 영역을 찬탈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군사적도발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일 피괴국방부에 48시간안으로 재개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최후통첩을 들이댄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한 도발광기에 열이 뜬 남조선피괴군부장패들은 주제104(2015)년 8월 20일 오후 또다시 잊지도 않는 《북포탄발사》사건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구실로 신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를 향하여 수신탄의 포탄을 판사하는



8월 20일 17시 남조선피괴국방부에 48시간안으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회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내보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결심을 승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적들이 48시간안에 심리모략방송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심리전수단들을 격파사격하기 위한 군사적행동과 있을수 있는 적들의 반작용을 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임명되여 해당 전선으로 급파되였다.

그리고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된데 맞게 해당 지역의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 안전보위, 인민보안, 사법검찰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을 준전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또한 적들의 로골적이고 불의적인 침략으로 인한 현 사태의 진상을 낱알이 까밝히고 폭로하기 위한 대외부문 일군들의 임무와 과업이 제시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무모한 군사적망동을 저질렀다.

우리의 면전에서 무모하게 벌어지는 남조선피괴군부장패들의 이러한 정치군사적도발은 지금 나라의 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8월 20일 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장들과 국가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들,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대외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는 8월 20일 오후 전선중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적들의 군사적도발행

위의 경위와 진상, 전반적적정에 대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 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20일 23시현재 작전진입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적들의 전쟁도발행동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대응계획이 토의되였으며 불가피한 정황에 따라 전 전선에서 일제히 반타격, 반공격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격작전계획이 검토, 비준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